

2022학년도 2학기

즐거움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부모 연수 자료

2022년 12월 6일(화)

회 현 초 등 학 교

연 수 목 차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2.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3
3. 장애인식개선	6
4. 인권교육	8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0
6. 양성평등교육	12
7. 흡연예방교육	14
8.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16
9.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20
10. 기후변화교육	26
11.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31
12.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35
13.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36
14. 도박예방교육	37
15.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안내	39
16. 평가 결과 제공 및 이의 신청 방법, 부정행위 근절	42
17. 교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4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추진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2.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용어 정의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 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4. 학교 책무성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정의

가.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나. 가정폭력의 정의

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2)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해자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가정구성원(동거친족 포함)
피해자	아동(18세미만)	아동(18세미만)	학생	가정구성원(동거친족 포함)

2. 아동학대의 유형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신체학대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나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집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 학대 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라.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방임)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유기)

방임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역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3.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및 치료(상담)

가.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요령

1) 아동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 (전화, 문자),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군산시청아동청소년과) : 063-454-3232
- 군산아동보호전문기관 : 063-734-1391 / Fax. 063-734-1398, 전북 군산시 백토로 202 2층
- 홈페이지 gunsan.goodneighbors.kr/ 신고전화 : 112
- 아동학대발생 시 사안보고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

1) 누구나 신고 가능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
- 교사 직군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

2)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

- 피해 아동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생각하며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피해 아동의 요구를 적극 반영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보호·심리치료 등 협조체계 유지

구분	내용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학생관련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학대재발 위험이 높아서 현재 생활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피해아동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피해 아동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협조 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치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 등

장애인식개선

전 세계 장애인 체육인들의 축제 패럴림픽

1. 패럴림픽(paralympic)이란?

패럴림픽은 1948년 세계 2차 대전의 영국 퇴역 군인들의 양궁 대회로부터 오늘날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고 하네요. 군인들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이 넓혀진 대회는 1960년 로마 대회였습니다. 또 초기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만 대회에 참가했지만 1976년 토론토 대회부터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참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인원이 크게 늘게 되었습니다.

패럴림픽의 종목 수는 22개이며 도쿄 패럴림픽에서 태권도가 최초로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 2020 도쿄 패럴림픽 엠블럼

올림픽 엠블럼	패럴림픽 엠블럼	
		<p>2020 도쿄 패럴림픽 엠블럼 속 세 가지 모양의 직사각형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 사고방식을 표현하며, 이들의 조화를 통해 '다양성의 화합'이란 메시지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서로 돕고 존중하면 능력이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성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패럴림픽의 참된 의미를 담아냈습니다.</p> <p>[출처: 도쿄 패럴림픽 홈페이지]</p>

3. 도쿄 패럴림픽 종목

					
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도로	사이클 트랙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유도	육상



4.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종목

종목	설명
	<p>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팀 골대에 넣는 시각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의 시각장애의 정도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선수가 아이 패치와 불투명 고글을 착용해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을 겨루도록 합니다. 공 안에는 방울이 들어있어 공에 뚫린 작은 8개의 구멍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선수들은 공의 소리를 듣고 공의 방향을 예측하여 수비해야 하며, 공격하는 선수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노력한다고 합니다.</p>
	<p>보치아는 빨간색, 파란색 공을 6번씩 번갈아가며 던져 흰 공(표적구)에 가까운 공 개수만큼 점수를 내어 승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표적에 가까이 공을 던지는 점이 컬링과 비슷하지만, 표적구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 승부 예측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보치아는 보급 초기, 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재활 스포츠였지만 현재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 즉,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신경장애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제어하며 공을 조준하고 던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선수가 공을 던질 때에는 경기장 내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p> <p>특히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지난 2016년 리우 패럴림픽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여 보치아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p>
보치아	

인권교육

1.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만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가. 생존권

생존권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계절에 맞는 의복,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나. 보호권

보호권은 아이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 즉 학대와 방임,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 우울, 비행,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발달권

발달권은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성장, 발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여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라. 참여권

참여권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외모가 다르듯이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기분과 감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님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감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매일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정작 부모 자신에 대한 투자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아이 못지않게 자신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한 모습보다는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 신뢰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숨기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부모님들은 화가 나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을 걱정해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야,.....했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서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다는 게 알고나 하는 말인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10~19세 소아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흔히 자살 문제는 사춘기 이후의 나이에서 보이는 문제로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 생각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SNS 상에 자해 인증사진을 돌려보기도 하고 모방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 표현의 신호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이러한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누구나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자살의 개념보다는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 괴로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때, 자해 행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 부모가 느끼는 당혹감을 직접 표현하거나 성급히 자녀를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2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자극되기도 합니다.

- 자녀가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담임 선생님과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물어보세요.
-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 학교 가기 싫다고 호소할 때 등교를 강요하기보다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과 상황을 헤아려보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화하십시오.

3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입니다.

- 1) 식사와 수면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4)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5) 일기장이나 SNS에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6) 자각, 등교 거부를 합니다.
- 7) 사람들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 8)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 10)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1)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2)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사거나 평소 하지 않던 쾌락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은 자녀가 위와 같은 신호를 보일 때 일시적인 스트레스 신호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심각한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1) 관찰되는 모습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 “요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혹시 무슨 일 있니?”

2) 죽음에 관해서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데...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 있니?”
-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아빠)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자녀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듣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4) 집안의 위험한 물건(칼, 약물 등)을 없애거나 감춰주세요.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5)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X) • “그건 나쁜 생각이야.”(X)
- “힘들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 별거 아니야.”(X)
- “그랬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구나.”(O)

**6) 표현을 한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 “엄마(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해결해 보자.”

7)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특히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이가 다시 자살 생각을 하는 경우, 혹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 표현이나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두고 귀 기울여 주세요.**

위 글은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양성평등이란

- 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차단되어서도 안 되며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차별이란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나. 성차별의 사례



3.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 가.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 나.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 다.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라.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 마.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바.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우선 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사.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 아.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자.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 차.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을 잘 하는데 있다.

4.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생각들

- 가.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 나.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 다.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 라.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5. 양성평등한 자녀교육이란

- 가.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 나.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 라.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마.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바. 어렸을 때부터 딸과 아들에게 예술이나 체육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웁니다.
- 사.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아.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6. 평등가족 5계명

- 가. 항상 좋은 일로 대화하도록 노력하고, 민주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나. 집안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분담하고 책임지며 휴식도 함께 취합니다.
- 다. 가족 모두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 라. 가족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마.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구촌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 ▶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천은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양성평등 의식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국민 화합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흡연예방 교육

1. 담배의 성분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가지 이상의 해로운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 중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해로운 3가지 물질은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입니다. 또한 아세톤(매니큐어를 지우는 물질), 나프탈렌(방부제), 비소(개미 죽이는 약), 암모니아(화장실 청소제) 등의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담배의 가장 해로운 3가지 물질

- ① 니코틴 : 담배의 주요성분으로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고혈압, 심장병 등을 일으킵니다.
- ② 타르 : 담뱃진이라고 하는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이란 우리 몸에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숨 쉬는 역할을 하는 폐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폐암의 90%는 흡연이 원인**입니다.
- ③ 일산화탄소 : 우리 몸에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물질로, **피부를 검게 하며 빨리 늙게** 합니다. 담배가 **뇌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2. 간접흡연이란?

-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주위에서 들이마시는 상태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간접흡연의 피해
 - ▶ 평균 신장이 1cm 작아집니다.
 - ▶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6배 높아집니다.
 - ▶ 폐암 발생률이 2배 높아집니다.
 - ▶ 천식, 중이염, 폐렴 발현율이 6배 높습니다.
 - ▶ 뇌세포 파괴로 학습능력이 저하됩니다.
 - ▶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은 24년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 ▶ 어린 나이의 흡연은 유전자 손상으로 각종 암에 걸립니다.
 - ▶ 흡연을 어린나이에 시작할수록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합니다.

3.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2019년 10월17일 시행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등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 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학생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고소·고발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이때, 피해교사가 원하면 관할청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이후로도 계속·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함

□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교육부 '학부모 교육자료' 내용 발췌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 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I 학교폭력, 부모님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가.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 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등
-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짝려보기, 비웃기 등

나.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띈다.
-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2. 피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연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3. 학교폭력 대응 방안

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나.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 학부모 ON누리 www.parents.go.kr

II 따돌림, 서로 배려하는 생활 태도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따돌림의 징후와 예방 방법

가. 따돌림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

- 늦잠을 자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 머리카락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 도시락을 먹지 않았거나 혼자 먹었다고 이야기한다.
-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둘러댄다.
- 몸에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서 집에 돌아온다.
-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 급우들에 대해 담임교사의 편애를 지적하며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 용돈이 적다고 투정부리고 때로는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한다.
- 과제물, 교과서 등이 없거나 책상, 노트, 가방 등에 낙서가 되어있다.

나. 따돌림 예방 방법

- 겸손한 생활 태도로 친구를 사귀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 남을 먼저 배려하고,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 줍니다.
-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거짓말, 고자질, 이간질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평소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 줍니다.
- 자녀의 메모나 휴대폰 사용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자녀와 어울리는 친구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 자녀의 단짝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부모와 상호 전화하세요.

2. 따돌림의 대처 방법

가. 따돌림 피해 자녀, 대처 방법

-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유, 가해자, 상태)을 확인하세요.
-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에게 힘들겠지만 함께 노력하여 이겨 내자고 말해 주세요.
- 자녀가 긍정적 사고로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세요.
-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상의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따돌림 가해 자녀, 대처 방법

-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 자녀가 보인 폭력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되 다정한 말로 지도하세요.
- 문제가 해결되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펴보세요.

III 언어폭력, 부모의 모범으로 순화시킬 수 있어요.

1. 언어폭력이란?

위협적이고도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 특히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도록 하는 말장난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가. 언어의 폭력적 내용

욕설하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저주험담하기, 비웃기(희롱, 조롱), 이상한 소문내기, 약점 건드리며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흉내 내면서 놀리기, 신체 외모 놀리기, 옷차림 비웃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욕이나 비난의 문자 보내기 등

나. 언어폭력의 영향

- 대인관계가 나빠집니다.

-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줍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키워 갑니다.
- 생활에 습관화되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정서 장애를 유발합니다.

다. 언어폭력의 징후 점검사항

<친구나 가족(형제·자매)과 대화(전화)할 때>

- 욕설을 자주 한다. • 빈정거리거나 면박을 준다.
- 별명을 사용한다. • 욕설이나 비난의 문자를 보낸다.

2. 청소년기에 욕설을 하는 이유

-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또래끼리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 습관화되면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게 됩니다.
- 화가 난 상황에서 당장 분을 삭이기 위해 내뿜는 분풀이로 욕을 합니다.

3. 언어폭력 대처 방법

-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 부모님의 언어, 자녀 언어생활의 거울입니다.
- 자녀 말에 상처 주는 말은 삼가 주세요!
-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게 말하세요!
- 따뜻한 말도 많이 해 주세요!

부모님이 무조건 야단을 친다고 해서 욕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정에서의 대화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욕을 자주 듣고 하다보면 도를 넘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좋은 언어를 모방할 수 있도록, 고운 언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꾸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IV 성폭력, 대화와 소통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방법

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의 대화하기

-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 등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 가정, 학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 부담스러운 주제라며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 성과 성폭력을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나. 성폭력에 대한 통념 버리기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NO! 74%는 아는 사람, 13%는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NO!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이 어렵습니다.
- 장난인데 억울하다?
➔ NO!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NO!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 갔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자료)

2. 성폭력 피해 시 대처 요령

가. 성폭력 피해 직후

신체적 징후	심리적 징후	성적 행동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 밥을 먹지 않거나 갑자기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 • 성기 통증을 호소한다. •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감을 행동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몽을 꾸거나 불안 증세를 보인다. • 평소보다 시무룩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을 나타낸다. •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행동이나 성행위를 흥내 낸다. • 성기나 성행위 등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인다. • 음란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

※ 모든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피해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믿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줍니다.
-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이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 발생되었던 장소, 날짜, 시간,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 자녀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

-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 성 문제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이야기합니다.
- 자녀를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TIP, 꼭! 알아 두세요!

- ONE-STOP지원센터(☎117)
-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
- 해바라기아동센터(www.forchild.or.kr)
-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www.sexoffender.go.kr) 등

기후변화교육

●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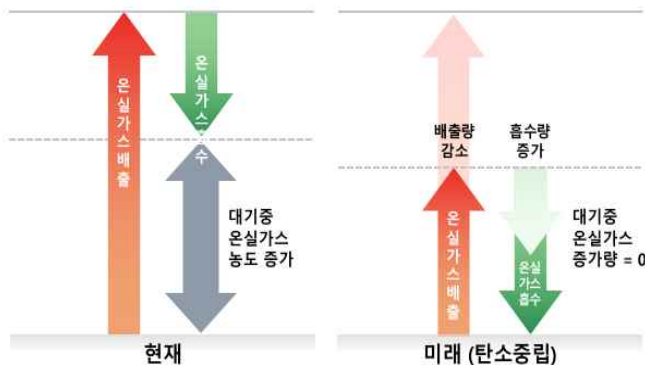
-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CCUS*)을 활용하여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 (Net-Zero)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지구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숲 복원, 네거티브 배출기술을 활용한 흡수(제거)량을 늘려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발전소, 제철소 등 또는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제거하는 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

● 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까요?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1.5°C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C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 *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40개 나라의 과학자 91명이 작성하였으며,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회원국(195개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보고서

1840년부터 2018년까지 총 645 GtC의 탄소 배출



1850~2018년 기간 인위적 누적탄소배출량과이동



[출처] Global Carbon Budget 2020(P. Friedlingstein 외, 2020)

행동해야 할 시간

#TimeForAction

26개 국가 탄소중립 공식 선언

[기준] 2021년 08월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목표 상향 연합' 136개국 가입



국가	시점	탄소중립 시기
영국	'19.06.	'50년
프랑스	'19.11.	'50년
EU	'20.03.	'50년
캐나다	'19.10.	'50년
중국	'20.09.	'60년
일본	'20.10.	'50년
핀란드	'20.10.	'35년
남아공	'20.09.	'50년
스웨덴	'20.12.	'45년
한국	'20.12.	'50년

IPCC	UNFCCC	Paris Agreement	Global Warming of 1.5°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약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기후변화 협약	IPCC 1.5 특별보고서
<p>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 주기적으로 당사국들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행</p>	<p>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유엔기본협약</p>	<p>2100년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1850-1900 평균) 대비 2°C 보다 훨씬 아래로, 나아가 1.5°C 아래로 억제하도록 노력하자는 목표 설정</p>	<p>2100년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1.5°C 아래로 억제할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제시</p>

● 왜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할까요?

-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2°C 상승 억제 목표를 논의해왔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된 이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C 억제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었고,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기후 분석 및 지구시스템 모델링 연구 결과는 지구 평균 2°C 상승이 지구 기후시스템 수용 및 적응 한계의 마지노선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2°C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5년 12월 파리협정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2°C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C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5°C~2°C를 기후 저지선(climate defense line)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C 이상 상승했습니다. 1°C 이상 진행된 지구 온난화에 의해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더 높은 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태평양의 여러 도서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1.5°C 상승에 달하면 해발고도가 2~3 미터에 불과한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수몰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1.5도 상승 억제가 목표로 추가된 이유입니다.

-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2°C 상승 억제와 비교해 1.5°C 이하로 상승을 억제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C 상승 시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1.5°C 상승 억제 시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5°C와 2.0°C 기후변화 영향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통해 1.5°C와 2.0°C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비교·제시하여 1.5°C 상승 억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

구 분	극한 온난일	극한 한랭야	해수면 고도	산호초	해양어획량	서식지 절반을 상실하는 종		
1.5°C 온난화	3.0°C 상 승	4.5°C 상 승	0.26~0.77m 상 승	70~90% 위 험	150만톤 감 소	8% 식 물	4% 척추동물	6% 곤 충
	↓ 1.0°C	↓ 2.0°C	↓ 0.1m	↓ 9~29%	↓ 150만톤	↓ 2배	↓ 2배	↓ 3배
2.0°C 온난화	4.0°C 상 승	6.5°C 상 승	0.3~0.93m 상 승	99% 위 험	300만톤 감 소	16% 식 물	8% 척추동물	18% 곤 충

●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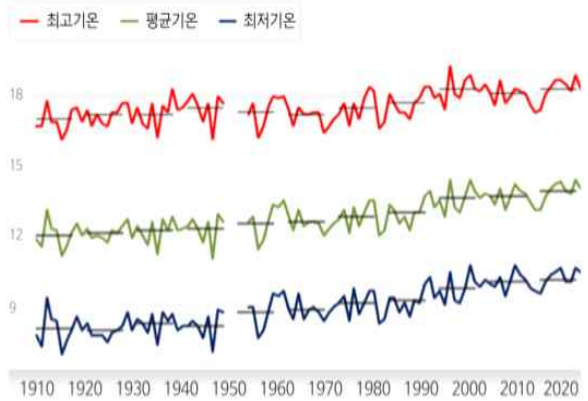
- 연안침수 증가, 화재강도 및 빈도 증가, 극단적 기상현상, 외래종 및 질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로 산림, 초지, 습지 등 중요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서비스(교육과 예술적 영감, 휴식과 건강),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지 제공), 공급서비스(식량·의약자원·원자재 공급), 조절서비스(대기질·수질 조절, 자연재해 조절, 꽃수분 등)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 내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폭염 및 산불, 홍수, 한파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약 17조 달러 규모의 위험비용이 예상되며, 2050년 기후 난민 수가 최대 1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

온도

과거 109년(1912-202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C 씩 꾸준히 상승



[출처] 한반도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기상청, 2020)

계절

계절의 시작일과 계절 길이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



과거 30년(1912-1940) 대비
최근 30년(1991-2020) 기준

여름일수
20일 증가 ⬆

겨울일수
22일 감소 ⬇

- ☑ 봄 시작일은 빨라졌으며,
- ☑ 가을 시작일은 느려짐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국토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시설물 노후화 진행 ☑ 연안습지면적 감소로 연안지역 재난재해 완충기능 약화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 열대지방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 나뭇잎개열, 철새도래, 조류번식시기 등 생물계절 변화 및 생물 종 다양성 감소 ☑ 식생대 변화 및 내륙습지 소멸 예상



[출처] 국립생태원

● 기후변화를 늦추는 실천

- **1도의 비밀:**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₂가 줄어듭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28℃로 합니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합니다. 여름철에는 간편한 복장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습니다.
- **B.M.W 건강법:**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Bus), 지하철(Metro), 걷기(Walking)로 내 몸과 지구에 건강을 선물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갑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합니다. 카풀에 참여합니다. 경차를 탑니다.
- **착한 선택:**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녹색소비는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입니다.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씁니다. 재활용 제품을 애용합니다.
- **Speedy 샤워:** 물을 아껴 씁니다.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₂도 7kg 줄어듭니다. 샤워기와 양변기는 절수형으로 설치합니다. 양치질과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씁니다. 세탁은 한번에 모아서 합니다.
- **I LOVE 머그컵:**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합니다. 1회 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장바구니 이용을 생활화합니다. 리필제품을 구입합니다.
- **Eco-드라이빙:**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급출발 · 급가속 할 때마다 40원씩 낭비됩니다. 출발 전에 행선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합니다. 경제 속도로 운전합니다.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합니다.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 **플러그 OFF:**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플러그를 뽑으면 한 달 전기료는 공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끕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끕니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에어컨보다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끕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초록사랑:**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₂를 흡수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에게 6만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2.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인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수학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학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 예, 가능합니다. >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종업식 날 이후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에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1. 촌지 및 불법찬조금 정의

가. 촌지란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며 건네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육계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임

나.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2.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가. 촌지 유형

- 1)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2)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나.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2)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3)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1.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3.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라.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4.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도박예방교육

1.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안내

□ 청소년 도박으로 2차 피해 발생 심각

<최근 관련 방송·보도기사>

- ① 학생 간 고리사채까지 생겨난 청소년 도박(대전일보 2019.08.21.)
- ② 온라인도박 빠져 350만원 빚...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오마이뉴스 2019.07.27.)
- ③ 감언이설·호기심에 끌려 도박의 늪...학업부진 넘어 빚더미 올라앉기도(세계일보 2019.07.13.)
- ④ '도박중독 치료' 이용 청소년 3년 새 6배 증가(헤럴드경제 2019.07.07.)

<최근 성행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 도박자금 관련 대리입금, 학생 간 고리사채,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도박자금 마련 2차 피해>

① 대리입금(줄임말-덜입)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 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

- 10만원을 빌려 주고 1주일 후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연 **1,500%이상**,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 이하)
-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② 친구들간 고리 금전거래

- 10만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수고비)**로 3만원을 떼고 7만원을 대출 후 1주일 뒤 15만원 상환 요구. 약속된 1주일도 되어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시간당 과금 부과.
- 친구들간 법정최고이자(연 24% 이하)를 훨씬 뛰어넘는 이율 적용,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짐

③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

- 본인의 도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친구의 계좌를 빌려 대리베팅을 하는 사례
- 불법도박 운영에 가담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친구나 후배들을 강제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

④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

□ Q&A

청소년도 도박을 하나요?	청소년 도박 처벌받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재학 중 청소년 6.4%(14만명)가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도박문제로 상담 받는 청소년 인원이 3년새 6배로 증가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도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처벌수위(구속, 기소유예 등)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금액,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리입금 이용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대리베팅, 강제베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 →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은 엄연한 학교 폭력입니다. ○ 교내의 경우 선생님이나 신고함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교외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 스마트폰앱(117 chat), 해당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및 대처법

- 청소년 도박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하세요!
- 자녀의 **행동**에서 아래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 도박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자녀와 도박으로 인해 어떤 문제(**금전, 학업, 교우관계** 등)가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국번없이 1336)**을 신청하십시오.

헬프라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36)



Help!

헬프라인(전국서비스)
국번없이
1336

온라인 상담(도박문제 네티라인)



온라인 상담
도박문제 네티라인
<http://netline.kcgp.or.kr>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안내

1. 나이스 학생 서비스 안내

가. 나이스 학생서비스 제공목적

- 학생서비스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급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나이스 학생서비스 서비스 대상

-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학교급 자료 열람은 불가하오니 민원서비스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방법

나이스대국민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www.nei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회원 구분(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에 따라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에 맞게 선택한 후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접속 후 학생서비스를 선택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학생용 인증서 발급	학생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keris.signgate.com)에 접속하여 학생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학생인증서를 '인증서 발급/등록'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학생서비스 이용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학교생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나이스 학생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이용방법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보안수준)에 따른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https://www.onepas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 : 02-374-0980~1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다음 절차에 따라 디지털원패스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로그인 → '나의 서비스' 클릭 → '이용서비스 변경하기' 클릭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선택 → '동의' 클릭 → '변경' 클릭 → '확인' 클릭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의 나의 서비스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가 추가되었다면,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도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 (보안수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보안수준 높음 :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안면, 패턴, PIN	▶	인증서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보안수준 낮음 : SMS(문자), 패스워드	▶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은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안내

가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제공목적

- 학부모서비스는 열람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 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간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대상

-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학교급 자료 열람은 불가하오니 민원서비스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방법

나이스대국민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www.nei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원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접속 후 학부모 서비스를 선택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학부모 인증서 발급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등록' 메뉴에서 학부모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 등록	보유중인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발급/등록'메뉴에서 등록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후, 학교생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 신청 필수)

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이용방법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https://www.onepas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 : 02-374-0980~1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다음 절차에 따라 디지털원패스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로그인 → '나의 서비스' 클릭 → '이용서비스 변경하기' 클릭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선택 → '동의' 클릭 → '변경' 클릭 → '확인' 클릭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의 나의 서비스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가 추가되었다면,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도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보안수준)에 따른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 (보안수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보안수준 높음 :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안면, 패턴, PIN	▶ 인증서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보안수준 낮음 : SMS(문자), 패스워드	▶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은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결과 제공·이의신청 방법, 부정행위 근절

1. 평가 결과 제공과 이의신청

- ①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는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별 시기는 학급, 교과목, 담당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신청 접수(평가결과 공개일부터 3일간) → 이의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2. 이의신청·성적처리 완료 후 평가 결과 제공 방법 및 횟수

- ① 성장평가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또는 관리하되 다음 학년도 담임이 학생 성장의 지원 자료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평가 결과는 연 1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해당 학년말에 1, 2학기 성적을 종합하여 가정에 통지하도록 한다. 단, 평가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수시·상시 입력하여 관리한다.

3. 수행평가 결과물 등 보관기간

- ①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 학생들의 평가 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록 자료 등은 당해 년도 3.1.부터 학년말 학년·학기·교과별로 철하여 보관한다. 단, 미술작품 등은 실물 대신 작품을 촬영한 자료를 다른 결과물과 함께 보관할 수 있다.

4. 부정행위 처리절차와 처리 기준

- ①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 업무 담당 교사에 제출
- 선도처분 및 해당 평가 최하위점 부여

5.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 ① 과목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은 담임이나 교과전담교사의 재량으로 다른 시간을 정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
- ②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교직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1. 개요

- (검토배경) 최근 '박사방'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교사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민청원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됨
 -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일부 발췌(20.3.29.)

“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만 얻었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서 또 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발령 정보 공개 및 홈페이지에 직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요구됨.

《 홈페이지 개인정보 공개 사례 》

- ◆ 학교 기관 홈페이지에 재직 중인 교사의 '직위, 성명, 담임반, 업무(담당과목), 학교연락처'를 안내
- ◆ 교사의 인사발령 사항(소속, 성명, 직위, 발령날짜, 과목)을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

2. 검토내용 및 결과

- (정보공개 측면)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지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20.4.17.)
 - 단,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 (출처: '19.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42p, 행안부)
- ※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관련사항 유권해석 의뢰 결과(20.4.17.)

-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정보(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 동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 A. 학교(사립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 가능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공시정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건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통계과, '20.4.6.)
- (개인정보보호 측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음 (행안부 개인정보정책과, '20.6.10.)

* 다른 법률에서 규정,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결론)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교사 및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유치·중등학교 교사 및 직원 대상(교장 및 교감은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등)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기관 업무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와 직원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

*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허용하는 경우를 말함

☞ 우리 학교는 교사 및 직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장의 담당자란에 '교무실', '행정실' 등 대표성을 띤 각 실의 이름만 제공합니다.